

【 해외금융 뉴스: 유럽 】

Solvency II 시행을 둘러싼 공방

- Solvency II의 시행과 관련하여 영국보험협회(ABI), 독일보험협회(GDV) 등 대다수 유럽 보험업계의 거친 반대와 로비가 진행 중인 가운데 스위스계 보험사인 Zurich Financial Services(이하 Zurich)가 처음으로 지지를 표명함에 따라 시행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는 모습임.
- ABI와 GDV 등은 Solvency II가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과도한 자본 강화로 잉여자본이 축적되고, 투자수익률 저하, 보험사 시장퇴출, 보험료 인상, 부보 범위 축소, 산업 내 혁신 의지 감소 등을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함.
 - ABI는 원안대로 Solvency II가 시행되면 영국 보험산업의 자본규모인 500억 파운드가 두 배로 커져야 하는데 이는 보험산업과 소비자에게 큰 위협이며, 각국 역시 마찬가지로 입장이 되므로 유로 금융시장의 안전성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함.
 - 유로감독당국이 금융위기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비교적 건전 자산상태를 유지한 보험산업에게 은행산업 등의 규칙을 종용하는 조치라고 공격함.
 - 한편 영국금융감독청(FSA)과 독일재무부도 Solvency II의 원안대로의 시행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짐.
- 반면, Zurich는 은행산업이 Basel II를 받아들인 것처럼 보험산업은 Solvency II를 받아들여 자본 강화와 투명성 제고 및 EU의 단일 감독기준 마련을 달성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.
 - 유럽 보험업계가 Solvency II 시행을 반대하는 것은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결국 산업과 소비자에게 이롭지 못하며, 올바르지 못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함.
 - 이에 대해 ABI등은 Solvency II 시행으로 타격을 입을 퇴직연금 비중이 적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이 가능하다고 공격했으나, 시장에서는 보수적인 투자 철학으로 금융위기에도 큰 타격을 받지 않은 Zurich의 주장은 근거가 있다는 입장임.
- 한편, 4월초 유로의회를 통과한 Solvency II는 현재 2012년 시행을 목표로 유로보험·퇴직연금감독자위원회(Committee of European Insurance and Occupational Pensions)가 각국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임.

(Financial Times, 9/1, 9/7)